

## 구원의 종말론적인 특징: “수가 찰 때까지”\*

허 규

가톨릭대학교, 신학과 교수

들어가는 말

1. “수가 찰 때까지”

1.1. 묵시 6,9-11

1.2. 로마 11,25-26

2. 유대교의 묵시문학

2.1. 1에녹 47,1-4

2.2. 4에즈 4,35-37

2.3. 2바룩 23,4-5

3. 종말과 구원

3.1. 하나님의 구원 계획

3.2. 구원의 보편성

나가는 말

\* 이 글은 2022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 작성된 논문임

## 들어가는 말

‘위로와 희망의 책’은 요한 묵시록을 가장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다. 기원후 95년 경 소아시아에서 기록된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은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구원의 소식을, 곧 머지않은 종말과 함께 새 세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을 환시로 전한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수신자로 하는 환시는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하여 종말을 향해 나아간다. 그중에 일곱 봉인은 요한 묵시록이 전하는 재앙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일곱 봉인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첫 네 재앙은 서로 연관된 내용으로 한 번에 표현되고 그 뒤를 이어 다섯째와 여섯째 재앙이,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재앙 전에는 성격이 다른 환시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일곱 나팔에서도 동일하다. 마지막 일곱째 재앙 전에 언급되는 성격이 다른 환시는 재앙의 대상을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어린양과 선택받은 이들의 환시(묵시 7장)와 작은 두루마리와 두 증인의 환시(묵시 10-11장)는 재앙의 대상이 신앙인들이 아니라 악의 세력과 그 세력에 동조하여 지금 신앙 공동체를 박해하는 이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

일곱 봉인의 다섯째 재앙(묵시 6,9-11)에서 그리스도교의 순교자들을 암시하는 ‘살해된 이들’에 대한 언급과 함께 쉽게 이해하기 힘든 언급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할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조금 더 쉬고 있으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묵시 6,11) 마치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이들의 수가 정해져 있고 그 수가 차야만 한다고 이해될 수도 있는 이 표현은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와 동일한 생각은 비단 요한 묵시록만이 아니라 로마 11,25-26에서도 표현된다. 표현의 형식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 본문들은 모두 종말을 말하는 문맥 안에 위치한다.

본고에서는 “수가 찰 때까지”를 언급하는 묵시 6,11을 중심으로 로마 11,25-26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찾아볼 것이다. 또한 요한 묵시록과 같은 문학양식에 속하며 종말을 주요 주제로 다루는 유다교의 묵시문학 본문들과도 비교해볼 것이다. 이것을 통해 묵시문학과 바오로 서간에서 말하는 구원과 종말에 대한 전승과 신학을 정리해 본다.

## 1. “수가 찰 때까지”

하느님의 정의는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주제이다. 특별히 종말을 배경으로 하는 본문들은 심판이나 전투의 이미지와 함께 하느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세상 역사에 대한 하느님의 개입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언급된다.

### 1.1. 묵시 6,9-11

다섯째 봉인을 묘사하는 묵시 6,9-11은 소위 ‘묵시적 기사들’(묵시 6,1-8)이라 불리는 넷째 봉인까지의 환시와 차이를 보인다. 묵시 6,1-8은 네 생물이 외치는 ‘오녀라’는 명령과 함께 소개되는 네 재앙을 언급한다. 이 단락에서 특징적인 것은 ‘받았다’(έδόθη)로 표현되는 신적 수동태(*passivum divinum*)의 사용으로(묵시 6,2,4), 살해하는 권한을 나타내는 상징과 죽음을 넘어서는 승리를 나타내는 상징들이 서로 대조적으로 사용된다.<sup>1)</sup> 이것을 통해 세상에 내리는 재앙은 종말을 향해 가는 하느님의 업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어지는 다섯째 재앙은 이전과는 구분되는 형식과 함께 소개된다.

“어린양이 다섯째 봉인을 뜯으셨을 때, 나는 하느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한 증언 때문에 살해된 이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님, 저희가 흘린 피에 대하여 땅의 주민들을 심판하고 복수하시는 것을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회고 긴 겉옷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할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조금 더 쉬고 있으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환시는 “하느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한 증언 때문에 살해된 이들”을 묘사한다. 이 표현은 이미 요한 묵시록의 시작에서부터 계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하느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언”(묵시 1,2)을 생각하게 하며 묵시 1,9에서는 동일한 표현으로 박해의 이유를 나타내기도 한다. 여기서 ‘살해된 이들’은 명확하게 신앙으로 인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sup>2)</sup>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요한 묵

1) John P. Heil, “The Fifth Seal(Rev 6,9-11) as a Key to the Book of Revelation”, *Biblica* 74(1993), 222-223.

시록에서 찾을 수 있는 독특한 생각이다. 그들이 죽음 후에 제단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현존 가까이 머물러 있다는 생각은 구약성경의 관점과는 구분된다.<sup>3)</sup> 그렇지만 기센(Heinz Giesen)에 따르면 묵시 6,9의 내용은 예제 40,1-44,3의 성전에 관한 환시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천상의 성전은 지상 성전의 본형으로 묘사되고 제단 주위에 머무는 살해된 이들의 영혼은 제사에서 제단 주위에 뿌려졌던 제물의 피를 연상시킨다(레위 4,18.30.34).<sup>4)</sup>

여기서 언급하는 제단은 요한 묵시록의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금 제단’(묵시 8,3; 9,13)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한 묵시록에서 말하는 금 제단은 성전의 두 번째 제단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두 제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5)</sup> 하나는 ‘번제 제단’(탈출 30,28)으로 불리며 성소의 외부에 있는, 사제들의 뜰에 있던 제단이며, 다른 하나는 성소 내부에, 지성소 바로 앞에 놓여 있던<sup>6)</sup> ‘분향 제단’(탈출 30,1-10)으로 ‘금 제단’(탈출 39,38; 민수 4,11)이라고 불리기도 한다.<sup>7)</sup> 저자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해석은 유다교의 묵시문학에서 ‘영혼들이 하나님의 어좌 아래’ 받아들여진다고 언급하는 것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1에녹 47,3-4 참조).<sup>8)</sup>

영혼들의 외침은 ‘언제까지’(ὡς πότε)라는 질문의 형태로 시작한다. 같은 형태의 질문을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시편이다.<sup>10)</sup> 이 시편들에서 ὡς πότε는 공통적으로

- 
- 2) Gerhard Maier, *Die Offenbarung des Johannes* 1-11, Historische Theologische Auslegung, (Witten: SCM R.Brockhaus, 2009), 330.
  - 3) D. E. Aune, *Revelation* 6-16, Word Biblical Commentary 52b, (Waco, TX: Word Books, 1998), 403.
  - 4) Heinz Giesen, *Die Offenbarung des Johannes*, Regensburger Neues Testament, (Regensburg: Pustet, 1997), 182-183.
  - 5) 요세푸스(Flavius Josephus)는 『유다전쟁사』(De Bello Judaico) 5,184-247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한다. 그의 묘사에 따르면 성전은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사제의 뜰로 구분되며, 번제 제단은 사제의 뜰에, 분향 제단은 성소 안에 자리한다. Flavius Josephus, *De Bello Judaico* II/1, ed. Otto Michel,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63), 135-145.
  - 6) 레위 4,18에서 말하는 “주님 앞에 있는 제단”도 같은 제단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7) Aune, *Revelation* 6-16, 405-406;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The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MI: Eerdmans, 1999), 391.
  - 8) 이와 비슷한 생각은 랍비들의 문헌에서도 찾을 수 있다(Avot de-Rabbi Natan, 12). Aune, *Revelation* 6-16, 404-405.
  - 9) ‘언제까지’로 번역된 ὡς πότε는 다른 번역도 가능하다. 독일의 전례에서 사용하는 공동번역(Einheitsübersetzung)은 이 용어를 ‘wie lange’로, 미국 주교회의에서 번역한 성경(New American Bible)도 ‘how long’으로 번역한다. 이 표현은 ‘언제까지’ 또는 ‘얼마나 더’로 번역될 수 있으며 본고에서도 문맥에 따라 ‘언제까지’와 ‘얼마나 더’를 함께 사용한다.

고통 받는 백성을 위해 하느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탄원의 맥락에 자리한다. 베르거(Klaus Berger)는 ‘죄 없는 이들이 흘린 피에 대한 복수’라는 주제는 성경의 오래된 전통에서 유래한다고 생각한다(요 24,12).<sup>11)</sup> 시편 외에도 종말론적인 하느님의 개입을 언급하는 예언서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sup>12)</sup>로 사용된다(예레 12,4; 하바 1,2; 다니 8,13; 12,6).<sup>13)</sup> 빌(G. K. Beale)은 구체적으로 묵시 6,10<sup>14)</sup>에 영향을 준 본문으로 즈카 1,12를 생각한다. 특히 말을 탄 기사에 대한 환시에서 이어지는 즈카르야 예언서의 본문과 ‘묵시적 기사들’(묵시 6,1-8)의 환시에 이어지는 요한 묵시록의 본문은 문맥에서도 동일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sup>15)</sup>

이러한 외침에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한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응답이 주어진다. ‘완성될 때까지’(ὡς πληρωθῶσι)로 옮길 수 있는 이 표현은 의미적으로 ‘완성된 수에 이르기까지’ 또는 ‘수가 찰 때까지’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sup>16)</sup> 마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채워져야 할 수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 이 표현은 유다교의 묵시문학 작품에서도 발견되며(1에녹 47,1-4; 2바룩 23,4-5), 동일한 형식을 사용하는 탄원과 답은 4에즈 4,35-37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강조가 되는 것은 구원이 개인적인 복수나 심판의 차원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생각의 배경에 하느님의 정의가 필요한 때에 세상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한다.<sup>17)</sup> 듀 랜트(Jan A. du Rand)는 묵시 6,9-11에서 신정론(theodicy)의 주제를 찾을 수 있으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유다교의 묵시문학 역시 같은 주제를 다룬다고 생각한다. 이 주제는 요한 묵시록 안에서 직, 간접적으로 자주 언급되는데(묵시 12,10-12; 16,5-7; 19,1-2; 20,3-4) 여기에는 하느님의 정의와 대조되는 고통과 악과 죽음의 문제가 포함된다. 그에 의하면 묵시문학의 종말론은 예언서와 지혜문학에서 영향을

10) 시편 6,3-4; 13,1-2; 35,17; 74,9-10; 79,5; 80,4; 90,13; 94,3.

11) Klaus Berger, *Die Apokalypse des Johannes* 1-10, (Freiburg i.Br.: Herder, 2017), 564-565.

12) ‘언제까지’ 또는 ‘얼마나 더’와 같은 의미로 번역되지만 일부 본문은 ὡς 만을 사용한다.

13) Richard Bauckham, *The Climax of Prophecy*, (London: T&T Clark, 1993), 51.

14) 즈카 1,12: “만군의 주님, 당신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을 가없이 여기저기 앉으시고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일흔 해나 되었습니다.”

15) Beale, *Revelation*, 393.

16) 그리스어 동사 πληρω가 자동사로 쓰일 때 ‘수가 차다’ 또는 ‘수가 완성되다’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Liddell-Scott, *Greek-English Lexicon*, (Oxford: Clarendon Press, 1983), 1420.

17) Ulrich B. Müller, *Die Offenbarung des Johannes*, Gütersloher Taschenbücher 510,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sup>2</sup>1995), 171.

받았지만 특징적인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역사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갖는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악의 문제를 다룬다.<sup>18)</sup>

## 1.2. 로마 11,25-26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를 알아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신비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부가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는 다른 민족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ἔρχη οὖ τὸ πλῆρωμα τῶν ἐθνῶν εἰσελθῆ καὶ οὕτως πᾶς Ἰσραὴλ σωθήσεται)

로마 11,25-32<sup>19)</sup>는 26절에서 표현되는 ‘온 이스라엘(πᾶς Ἰσραὴλ)의 구원’을 주제로 삼는다. 바오로는 구원에 대해 정리하면서 로마서 안에서 두 번 ‘신비’를 언급한다. 신비는 직접 하느님에 대해(16,25) 그리고 그분의 업적에 대해(11,25) 말할 때에 사용된다.

던(James D. G. Dunn)에 따르면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신비’는 단순히 알려지지 않은 어떤 것의 의미를 넘어 종말 때에 이루어질 하느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며 백성을 위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한다.<sup>20)</sup> 그렇기에 ‘신비’는 우선 종말론적인 특징을 지닌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신비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바오로에게 전해지고 그를 통해 선포되는 새로운 신비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sup>21)</sup>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선택과 현실의 구원 사이에 모순이 자리하게 되는데 이런 특징은 묵시문학의 주요 주제이기도 하다.<sup>22)</sup>

18) Jan A. du Rand, “To Adore God’s Identity through Theodicy: Reading Revelation 6,9-11 in Theological Coherence with a Remarkable Classical Example, 4 Ezra”, *The Covenant Quarterly* 72(2014), 111-112.

19) 로마서는 기원후 56년경 바오로가 코린토에 머물면서 써 보낸 편지로 생각한다. 제1 바오로 서간의 마지막 편지로 여겨지는 로마서에는 의로움과 구원에 대한 바오로의 신학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로마 11,25-32는 로마서에서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설명하는 1,16-11,36의 마지막 부분에 자리한다. Oda Wischmeyer, “Römerbrief”, in *Paulus*, ed. Oda Wischmeyer, (Tübingen: A.Francke Verlag, 2006), 241-242.

20) James D. G. Dunn, *Romans* 9-16, Word Biblical Commentary 38b, (Waco, TX: Word Books, 1988), 690.

21) Donald G. Bloesch, “All Israel Will Be Saved”, *Interpretation* 43(1989), 131-133.

22) Michael Wolter, *Der Brief an die Römer* 2(Röm 9-16), Evangelisch-Katholischer 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6/2, (Ostfildern: Patmos, 2019), 203-204.

25절의 ‘이스라엘의 일부’(μέρος τῷ Ἰσραὴλ)는 26절의 ‘온 이스라엘’<sup>23)</sup>과 대조되는 표현으로, 이것을 통해 바오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것처럼 보인다. 완고함과 연결된 ‘이스라엘의 일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스라엘에 대한 바오로의 사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코헨(Jeremy Cohen)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로마 9,7-8에서 언급하는 혈통에 의한 자녀가 아닌 약속에 의한 자녀를 강조한다. 바오로에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출신이나 혈통과는 상관없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구약성경의 예언에서도 드러난다(이사 59,20 참조). 요엘 3,5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를 인용하는 로마 10,13이나 이사 65,2의 “복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는 내용을 인용하는 로마 10,21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24)</sup> 이미 아브라함의 약속과 구약성경의 여러 내용에서 이스라엘의 거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으로 초대하는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다수의 유대인과 그리스도를 믿는 소수로 갈라져 있다. 온 이스라엘은 이 두 그룹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상정한다.<sup>25)</sup>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들의 ‘완고함’(πύρωσις)은 “민족들의 수가 찰 때까지”(ἄχρι οὗ τὸ πλήρωμα τῶν ἐθνῶν) 이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역사 안에서의 완고함은 바오로에게 낯설지 않은 주제이며(로마 10,21) 이것 역시 하느님의 구원 역사 안에 속한다(로마 11,7-10; 2코린 3,14).<sup>26)</sup>

‘이스라엘’과 ‘민족들’의 관계는 로마서의 중심 주제를 나타낸다. 바오로에게 구원은 하느님 앞에서 얻는 의로움을 통해 표현되고 그것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미 서간의 시작에서 바오로는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리스인에게까지, 믿는 사람

23) 듀 투이(Philip la Grange du Toit)는 바오로가 사용하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바오로에게 ‘이스라엘’은 과거의 역사 속 이스라엘을, 그리고 ‘유대인들’은 현재에서 역사적인 이스라엘과 관련된 민족적인 개념을 지시한다. Philip la Grange du Toit, “The Salvation of ‘All Israel’ in Romans 11,25-27 as the Salvation of Inner-Elct, Historical israel in Christ”, *Neotestamentica* 49(2015), 420-422.

24) Jeremy Cohen, “The Mystery of Israel’s Savation: Romans 11,25-26 in Patristic and Medieval Exegesis”, *Harvard Theological Review* 98(2005), 252-255.

25) Wolter, *Der Brief an die Römer* 2, 206-207.

26) 바오로가 사용하는 πλήρωμα와 πληρώω는 그의 서간에서 대부분 양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Du Toit, “The Salvation”, 429-431.

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함”(로마 1,16)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이스라엘에 주어진 아브라함의 계약을 기억하고 인정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로마서의 기본적인 생각과 함께 이스라엘의 구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제시된다. 스테플스(Jason A. Staples)는 제기될 수 있는 견해를 네 가지로 정리한다. 그에 따르면 현대의 학자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견해는 “교회적인 해석”이다. 이것은 교부들이 선호하던 방식으로 이 해석 안에서 이스라엘은 교회와 동일시 된다. 이것에 반하여 ‘두 계약’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 이것을 주장하는 이들은 로마 11,25-26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무관하게 이스라엘의 옛 계약과 현재에도 지속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강조한다. 이 견해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물리치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로마 11,1)라는 바오로의 확신에 찬 언명을 근거로 삼는다. 또 다른 견해는 ‘모든 민족들의 선택’으로 해석하는 것이다.<sup>27)</sup> 비교적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견해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로마 10,12) 구원이 베풀어질 것이라는 바오로의 선포와,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강조하는 입장이다(로마 9,6-8).<sup>28)</sup>

여러 해석 중에서 적합한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종말의 기적과 같은 사건’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바오로 스스로 이것을 ‘신비’라고 언급하는 것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해석에서 이스라엘은 역사적인 민족을 지시하는, 유대인들 전체를 나타내는 집합적인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옛 계약에 바탕을 두지만 역사 안에서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부로 이해되는 이스라엘의 완고함은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가 완성될 때까지 이어질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종말 때에 구원받게 될 것이다.<sup>29)</sup>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계약은 혈통이 아닌 믿음을 통해 전해진다는 바오로의 언명이 동일한 근거로 제시된다. 이러한 해석은 바오로의 신학적인 사상과도 맥을 같이

27) Jason A. Staples, “What Do the Gentiles Have to Do with ‘All Israel’? A Fresh Look at Romans 11,25-27”,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0(2011), 371-374.

28) Christopher Zoccali, “And so All Israel will be saved: Competing Interpretation of Romans 11,26 in Pauline Scholarship”,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0(2008), 303-309.

29) Reginald Mary Chua, “Aquinas and Romans 11,26”, *Journal of Theological Interpretation* 13(2019), 170-177.



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오로에게 다른 민족들의 구원과 함께 언급되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비록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론적인 의미를 포함한다.<sup>30)</sup>

요한 묵시록과 로마서 외에 유다교의 묵시문학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언급하는 본문을 발견할 수 있다. 비록 외경에 속하는 책들이지만 기원후 1세기의 같은 시대 배경 안에서 종말론적인 구원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 2. 유다교의 묵시문학

요한 묵시록의 연구에 자주 언급되는 것은 외경에 속하는 유다교의 묵시문학이다. 그 중에서 기원후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초반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예녹 1서(에티오피아 예녹서), 에즈라 4서, 바룩 2서(시리아어 바룩 묵시록)는 요한 묵시록의 이해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며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 많은 유사함을 찾을 수 있다.<sup>31)</sup>

이 책들은 분명 유다교의 묵시록으로 구분되지만 다양한 방면에서 그리스도교와의 연관성 역시 대두된다. 오우네(D. E. Aune)는 기원후 1세기에<sup>32)</sup> 유다교와 그리스도교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 책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 책들이 서로 묵시문학적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요한 묵시록과 유다교 묵시록들 사이에서 특정한 모티프는 문자적으로도 유사하다고 밝힌다. 그는 바룩 2서가 요한 묵시록과 에즈라 4서에 영향을 주었고<sup>33)</sup>, 요한 묵시록 역시 에즈라 4서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sup>34)</sup>

30) Richard N. Longenecker, *The Epistle to the Romans*, The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MI: Eerdmans, 2016), 898-900.

31) Ulrich Luck, "Das Weltverständnis in der jüdischen Apokalyptik", *Zeitschrift für Theologie und Kirche* 73(1976), 286-287.

32) 유다교의 묵시록들은 기원후 1세기, 좀 더 정확하게는 성전이 파괴된 70년 이후에, 요한 묵시록의 기록 시기와 비슷한 때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묵시문학적 주제를 공유한다. Adela Yabro Collins, "Apocalyptic Themes in Biblical Literature", *Interpretation* 53(1999), 122-123.

33) 많은 학자들은 에즈라 4서와 바룩 2서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했다. 이 두 책은 다른 책들에 비해 구성에 있어서나 동사의 활용에 있어서 상당히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병행구들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Mattias Henze, "4 Ezra and 2 Baruch: Literary Composition and Oral Performance in First-Century Apocalyptic Literature",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1(2012), 184-185.

34) D. E. Aune, "The Apocalypse of John and Palestinian Jewish Apocalyptic", *Neotestamentica* 40(2006), 1-6.

## 2.1. 1에녹 47,1-4

1952년 쿠파란에서 처음으로 사본이 발견되면서 에녹 1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에녹 1서는 여러 세기에 걸쳐 기록되었고 상당한 부분이 후대의 편집에 의해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특이할 점은 그리스도교적인 전승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자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에녹 1서의 편집 시기는 기원후 1세기경으로 생각하며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파수꾼의 책(The Book of the Watchers, 1-36장), 2) 비유의 책(The Book of Parables, 37-71장), 3) 천문에 관한 책(The Astronomical Book, 72-82장), 4) 꿈의 책(The Book of Dreams, 83-90장), 5) 에녹의 편지(The Epistle of Enoch, 91-105장). 그리고 책의 마지막에는 두 개의 부록, 곧 노아의 탄생(106-107장)과 에녹의 마지막 편지(108장)가 추가된다. 본고에서 다루는 1에녹 47장은 ‘비유의 책’에 속하며, 에녹의 환시를 통해 천상적인 ‘사람의 아들’에 대한 주제를 종말론적인 배경 안에서 다룬다.<sup>35)</sup>

[1] “그 때에 의로운 이들의 기도는 하늘로, 그들의 피는 땅으로부터 영이신 주님 앞으로 올라간다. 하늘에 머무는 거룩한 이들이 그 위에서 (함께) 머물게 되는 때이다.

[2] 그리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영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며 찬미하면서, 의로운 이들이 흘린 피에 대하여 대신 탄원하고 기도할 것이다. 그들의 기도는 영이신 주님 앞에서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위한 정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쉬는 일도 없을 것이다.’

[3] 그 때에 나는 영광의 어좌에 앉으시고 생명의 책이 그분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시간에 앞서는 그분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하늘 위 그분의 모든 힘과 그분 앞에 있는 궁정을 보았습니다.

[4] 거룩한 이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의로운 이들의 수가 드러났고, 의로운 이들의 기도가 받아들여졌으며, 의로운 이들의 피가 영이신 주님의 앞에 있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sup>36)</sup>

1에녹 47,1-4에서 다루는 주제는 ‘의로운 아들’이라 할 수 있다. 의로운 아들에 대한 본문의 언급은 ‘목숨을 바친’이란 표현과 함께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35) W. S. Vorster, “1 Enoch and the Jewish Literary Setting of the New Testament”, *Neotestamentica* 17(1983), 6-7.

36) James H. Charlesworth(ed.), *The Old Testament Pseudepigrapha* 1, (New York, NY: Doubleday, 1983), 35.

으며 요한 묵시록의 내용과 유사하다. 그 외에 ‘거룩한 이들’(the holy ones)도 언급되지만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본문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드코크(P. B. Decock)는 에녹 1서에서 ‘거룩한’이라는 형용사가 하느님을 제외하고는 천사들에게 사용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도<sup>37)</sup> 문맥상 의로운 이들을 지시하기도 하며, 때때로 ‘거룩한 이들’이 천사들과 의로운 이들을 모두 지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1에녹 106,19). 그에 따르면 거룩한 이들이 천사가 아닌 의로운 이들을 나타내는 본문은 비교적 후대의 것으로 여겨지는 ‘에녹의 비유’(37-71장)와 ‘에녹의 편지’(92-105장)라고 정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이들’이 천사를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나타내는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니 7,27의 내용이다. 성경에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번역된 원문을 직역하면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이들의 백성’이다.<sup>38)</sup> 다니엘서에서 역시 ‘거룩한 이들’은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지시한다는 의견과 거룩한 유대인들을 지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서로 맞선다.<sup>3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 7,15-28의 내용을 염두에 둔다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거룩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으로 보인다.

하늘로 올라간 의로운 이들의 기도와 피는 하늘에 머물며 하느님을 찬양하는 한편 의로운 이들의 피에 대한 복수를, 하느님의 정의를 요청한다. ‘의로운 이들이 흘린 피’에 대한 복수와 보상은 하느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될 것이며, 의로운 이들의 수가 드러나는 때에 하느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단락은 1절과 4절에서 ‘영이신 주님’, ‘거룩한 이들’, ‘의로운 이들의 기도와 피’, ‘주님과 함께 머무름’과 같은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이것을 통해 저자는 완성과 실현의 의미를 강조한다.<sup>40)</sup>

1에녹 47,1-4의 내용은 주제에서 병행으로 볼 수 있는 묵시 6,9-11과 비교될 수 있다. 하느님과 함께 머물러 있다는 점, 의로운 이들, 곧 순교자들의 피가 복수와 보상을, 곧 하

37) ‘거룩한 천사들’: 1에녹 20,1-8; 21,9; 22,3; 24,6; 27,2; 32,6; 71,1; 93,2.

38) 성경의 번역은 거룩한 백성(λαῖ ἁγίαι)으로 번역한 칠십인역(LXX)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교회의의 번역본인 New American Bible은 히브리어 본문(the Masoretic Text)에 충실하게 ‘the people of the holy ones of the Most High’로 옮긴다.

39) P. B. Decock, “Holy ones, sons of God, and the transcendent future of the righteous in 1 Enoch and the New Testament”, *Neotestamentica* 17(1983), 71.

40) G. W. E., Nickelsburg-J. C. VanderKam, *1 Enoch* 2, Hermeneia,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12), 164-165.

느님의 정의를 요청한다는 점, 또한 그때에 ‘의로운 이들의 수’가 드러난다는 점은 분명  
묵시 6,9-11에서도 찾을 수 있는 공통된 요소이다. 비록 본문의 형태는 동일하지 않지만,  
이미 정해진 ‘의로운 이들의 수’를 언급하는 것으로 종말을 나타낸다.

## 2.2. 4에즈 4,35-37

기원후 100년경의 책으로 여겨지며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외경에 속하는 에즈라서는  
복잡한 구성을 보여준다. 현대의 학자들은 대부분 일곱 환시로 구성된 3-14장을 에즈라  
묵시록 또는 에즈라 4서로<sup>41)</sup>,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아 확장된 부분으로 보이는 1-2장  
을 에즈라 5서로, 15-16장을 에즈라 6서로 구분한다.<sup>42)</sup> 4에즈 3-14장은 대천사 우리엘  
(Uriel)과의 대화 형식 안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비극적인 사건과 함께 정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상황으로부터 하느님의 길을 찾는 에즈라의 모습을 보여준다. 에즈라의 내적인  
갈등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유대교의 전통적인 정의와 구원에 대한 생각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서 마주하는 고통의 문제를 다룬다.<sup>43)</sup>

[35] 의로운 이들의 영혼은 그들이 머무는 곳에서 이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얼마  
나 더 이곳에 머물러야 합니까? 우리의 보상인 추수는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36] 대천사 예레미엘<sup>44)</sup>은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너희와 같은 이들의 수가 찰 때를 위해 그

41) 에즈라 4서는 7개의 환시로 구성된다. 첫째 환시(3,1-5,20), 둘째 환시(5,21-6,34), 셋째 환시  
(6,35-9,25), 넷째 환시-여인의 환시(9,26-10,59), 다섯째 환시-독수리의 환시(11,1-12,39), 여섯째 환시-  
바다에서 온 사람에 대한 환시(13,1-58) 그리고 일곱째 환시(14,1-48)이다. 에즈라는 하느님의 창조로  
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창조 이후의 역사를 요약한다. 첫째 환시부터 셋째 환시는 우리엘과  
의 대화 형식 안에서 에즈라가 처한 상황을 이야기한다. 마지막 환시는 하느님이 에즈라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 에즈라 4서의 신학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대천사 우리엘과의 대화이다.  
여기서 하느님의 선택과 계약에도 불구하고 경험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룬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하느님은 메시아를 통해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주제도 명확하게 언급된  
다. Charlesworth(ed.), *The Old Testament Pseudepigrapha* 1, 517-520; A. E. Stewart, “Narrative  
World, Rhetorical Logic, and the Voice of the Author in 4 Ezra”,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2(2013), 388-389.

42) Du Rand, “To Adore God’s Identity”, 115.

43) Lydia Gore-Jones, “The Unity and Coherence of 4 Ezra: Crisis, Response, and Authorial  
Intention”, *Journal for the Study of Judaism* 47(2016), 217-218.

44) 4에즈 3-14장의 대화 부분에서 에즈라의 질문에 답하는 주된 천사는 우리엘이다. 시리아본은 36절에  
서 예레미엘(Jeremiel) 대신 1에녹 20,1-8의 일곱 천사의 명단에서 언급되는 레미엘(Remiel)로 전한  
다. Charlesworth(ed.), *The Old Testament Pseudepigrapha* 1, 531.

분은 시대를 저울에 달고 시간을 재었으며

[37] 수의 때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움직이지거나 행동하지 않으실 것이다.’<sup>45)</sup>

에즈라 4서의 형식과 내용은 묵시 6,9-11에 더욱 가깝다. 영혼의 외침과 ‘얼마나 더’라는 질문의 형태는 요한 묵시록에서 살해된 영혼이 외치는 ‘언제까지’라는 질문과 상응하며, 보상과 심판을 언급한다는 점에서도 하나의 병행구로 볼 수 있다.

하늘에 ‘의로운 이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을 언급하는 것은 에즈라 4서의 독특한 주제로 볼 수 있다. 에즈라의 셋째 환시에 속하는 4에즈 7,75-115에서 저자는 의로운 이들의 영혼과 악한 이들의 영혼을 대조하며 그들이 머무는 서로 다른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악한 이들은 “율법을 알보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미워한 이들”로 소개되며(7,79), 그들의 영혼은 비탄과 슬픔의 일곱 길을 걷게 된다(7,79-87). 반면에 의로운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길을 충실히 걷고 율법을 온전히 지킨 이들로 소개되고(7,88) 그들은 기쁨과 영광을 가져 올 일곱 개의 명령을 따르게 된다(7,88-101). 특별히 죽음과 부활 사이의 중간 단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은 특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sup>46)</sup> 에즈라 4서는 구약성경에서 하느님의 계명과 율법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길’의 표상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 의미에 있어서도 지혜문학의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sup>47)</sup>

대천사는 ‘너희 같은 이들’, 곧 의로운 이들의 “수가 찰 때”를 언급하며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답한다. 이 답은 영혼의 외침인 ‘우리의 보상인 추수’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추수는 구약성경에서부터 하느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표상으로 사용되며(이사 17,5; 예레 51,33; 호세 6,11) 같은 표상이 신약성경에서도 그대로 사용되지만, 종말에 이루어질 심판의 이미지가 더욱 강하다(마태 3,11-12; 13,36-43; 묵시 14,15).

에즈라의 질문에 답하는 대천사와의 대화로 이루어진 내용은 구약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하느님의 심판’을 주제로 한다. 그렇기에 에즈라의 질문은 유대교의 토라에 바탕을

45) Charlesworth(ed.), *The Old Testament Pseudepigrapha* 1, 531.

46) Henze, “4 Ezra and 2 Baruck”, 188-190.

47) Luck, “Das Weltverständnis”, 297-299.

둔 전통적인 생각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고 대천사의 대답은 종말에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새로운 정의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에즈라 4서의 생각은 바오로가 비판하는 율법에 따른 결과에서 오는 구원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의 모습과도 연결된다.<sup>48)</sup>

### 2.3. 2바룩 23,4-5

바룩 2서는 에즈라 4서와 비슷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비극적인 역사로부터 바룩은 묵시록을 통해 토라에 순명하고 충실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한다. 에즈라 4서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주요 주제로 삼는 반면에 바룩 2서는 청중이 토라를 해석한 것에 영향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룩 2서가 두 번째 성전의 파괴(기원후 70년) 이후 바르 코크바 항쟁(기원후 132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본문에서 암시하는 숫자를 감안하여(2바룩 28,2) 100년경을 제안한다.<sup>49)</sup> 바룩 2서는 총 8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엄밀한 의미에서 묵시록은 1-77장의 내용으로 볼 수 있고 78-87장은 첨가된 편지의 형식으로 이해된다.<sup>50)</sup>

라이트(J. Edward Wright)는 이런 바룩 2서의 본문에서 두 가지 축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수직적인 축으로 하느님과 저자와 관련된다. 하느님은 감추어진 비밀을 저자에게 계시하고 그는 하느님과 그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이것은 대부분의 묵시록에서 보이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수평적인 축으로 저자와 청중의 관계이다. 바룩은 하느님의 계시를 청중에게 전하면서 그들을 가르친다. 수평적인 축의 상호 관계는 신의 계시가 전해지는 통로와 같다.<sup>51)</sup> 저자와 청중의 관계는 토라에 충실하도록 이끄는 점진적인 과정으로 보이며 바룩 2서와 다른 묵시록들 사이에서 찾을 수 있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48) David A. deSilva, "Grace, the Law and Justification in 4 Ezra and the Paulin Letter: A Dialogue",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7(2014), 26-27.

49) Antti Laato, "The Apocalypse of the Syriac Baruch and the Date of the End",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Pseudepigrapha* 18(1998), 39-40.

50) Charlesworth(ed.), *The Old Testament Pseudepigrapha* 1, 615-616.

51) J. Edward Wright, "The Social Setting of the Syriac Apocalypse of Baruch",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Pseudepigrapha* 16(1997), 86-87.

2바룩 23장은 21,1-34,1까지의 단락에 속한다. 이 단락에서 바룩은 칠 일간 단식하고 나서 기도하는 중에 하느님이 시작한 것을 이제 마칠 것이라는 계시를 받는다. 이어 열두 재앙이 세상에 내리고 기름부음받으아가 올 것이며 종말을 배경으로 죽음에서의 부활과 최후 심판의 내용이 이어진다. 이 내용들은 바룩의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2바룩 3,5)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sup>52)</sup>

[4] 아담이 죄를 지은 이래로 죽음은 태어나는 이들에게 선포되었고, 태어난 이들의 많은 수가 헤아려졌다. 그리고 그 수를 위한 장소가 마련되어서 살아있는 것은 살아가고, 죽은 이들은 유지되었다.

[5] 어느 피조물도 약속된 그 수가 다시 차지 않는다면 다시 살 수 없다. 나의 영을 위해 살아있는 것이 창조되고, 죽음의 나라는 죽음을 받아들인다.<sup>53)</sup>

2바룩 23장은 혼란스러워하는 바룩을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구성된다. 23,4-5는 “살아있는 이들과 죽은 이들을 잊지 않았으며 (앞으로) 오게 될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2바룩 23,3)는 말씀에서 이어진다. 여기서는 생명과 죽음에 대해 언급하면서 죽은 이들의 부활을 통해 종말의 주제를 다룬다. 4절에서 말하는 ‘죽음이 태어나는 이들에게 선포되었다’는 표현은 분명 창세 3장에서 말하는 인간의 죄(원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바룩 2서는 여기에서 ‘수’를 중심으로 삶과 죽음을 구분하여 말한다. 묵시 6,11이나 4에즈 4,36과 마찬가지로 바룩 2서에서 역시 종말 때에 ‘약속된 수가 완성되는 것’에 대해 언급한다. 정해진 수가 완성되는 것으로 종말을 나타내는 묵시문학의 공통점이 자리한다. 2바룩 23,4-5에서 반복되는 주제는 죽음과 대조되는, 본문에서 ‘살다’로 언급되는 생명이다. 생명은 바룩 2서 전체의 중심 주제이기도 하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율법이다. 지혜의 다른 말인 율법은 멸망할 세상에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처럼 묘사된다.<sup>54)</sup>

또한 5절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피조물도 [...] 다시 살 수 없다’는 말씀은 이미 죽은

52) 대화의 형식으로 구성된 이 단락은 77,26까지 이어지며, 종말론적인 의미 안에서 세상의 역사와 시간에 대한 묵시문학적인 주제를 전하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Martin Leuenberger, “Ort und Funktion der Woekenvision und Ihrer Deutung in der Syrischen Baruchapokalypse”, *Journal for the Study of Judaism* 36(2005), 210-215.

53) Charlesworth(ed.), *The Old Testament Pseudepigrapha* 1, 629.

54) Shannon Burkes, “Life Redefined: Wisdom and Law in Fourth Ezra and Second Baruch”,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63(2001), 66-67.

이들의 부활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종말 때에 죽은 모든 이들이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전통적인 생각과도 부합한다.

### 3. 종말과 구원

지금까지 ‘수의 완성’이라는 주제를 언급하는 정경의 본문과 외경의 본문을 살펴보았다. 이 다섯 본문에서 형태에서 가장 유사한 것은 묵시 6,9-11과 4에즈 4,35-37이다. 두 본문은 모두 하느님의 개입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고통받는 백성이 하느님의 행동을 요청하는 “얼마나 다”(ώς πότε)라는 외침과,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죽은 이들의 영혼과 심판을 언급한다는 점에서 문학적으로 매우 가깝다.

1에누 47,1-4는 질문과 대답이라는 형식과 차이는 있지만 ‘의로운 이들이 흘린 피’에 대한 하느님의 정의를, 그분의 개입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묵시 6,9-11과 같은 내용을 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로마 11,25-26과 2바룩 23,4-5는 심판의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하느님의 구원을 언급한다.

보크햄(Richard Bauckham)은 유다교의 묵시문학 작품들이 요한 묵시록을 제외하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연관된 주제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전승의 관계를 언급한다. 그에 의하면 요한 묵시록과 에즈라 4서의 관계는 에즈라 4서와 바룩 2서보다 전승적으로 가깝다. 학자들은 이 책들 사이에서 전승을 규명하고자 노력했다. 크게는 두 가지의 경향으로 나뉜다. 하나는 묵시문학에 속하는 책들이 개별적으로 유다교의 전승을 공유했을 것이라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상호 연관 속에서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이다. 단편적인 일부의 내용을 떠나서 직접적인 영향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이전의 전승을 공유하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sup>55)</sup>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형식이나 전승보다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다섯 본문들이 담고 있는 종말과 구원에 대한 신학이다.

---

55) Bauckham, *The Climax*, 50-55.



### 3.1. 하느님의 구원 계획

요한 묵시록과 로마서 그리고 유다교의 묵시문학은 시대적인 배경과 종말에 대한 사상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수가 찰 때’라는 표현은 이 문헌들이 종말과 함께 구원을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죽임을 당할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묵시 6,11)

다른 민족들의 수가 찰 때까지(로마 11,25)

의로운 이들의 수가 드러났고(1에녹 47,4)

너희와 같은 이들의 수가 찰 때를 위해(4에즈 4,36)

약속된 그 수가 다시 차지 않으면(2바룩 23,5)

이 본문들은 종말을 수의 완성으로 표현하며 충만의 의미를 함께 나타낸다. 오우네는 정경과 외경에서 찾을 수 있는 이 공통된 사상을 ‘의로운 이들의 수’(numeros iustorum)라고 정리한다.<sup>56)</sup> 본문은 정확한 수나 수의 크기를 언급하지 않고 수가 완성되는 때를 언급하며 세상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나타낸다. 지혜문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발견할 수 있다. “저들은 정의에 쫓기고 당신 권능의 입김에 흠어져 한 번의 입김만으로도 고꾸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재고 헤아리고 달아서 처리하셨습니다.”(지혜 11,20) 하느님의 권능과 위대함을 말하면서 ‘모든 것을 치수와 수와 무게에 따라 손수 마련하셨다’(πάσα μέτρον καὶ ἀριθμῶ καὶ σταθμῶ διέταξας)는 지혜서의 표현은 ‘수의 완성’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sup>57)</sup> 치수와 수와 무게는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측정하거나 측량하는 기준이지만 구약성경은 이것을 통해 하느님과 창조의 위대함이나 완전함을 나타낸다(이사 40,12).<sup>58)</sup> 또한 여기에서 암시하는 것은 하느님의 계획이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 역사의 흐름은 성취를 향한 과정으로 이해되고, 세상의 종말과 함께 하느님의 계획은 성취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느님에 의해 계획되었고 마련되었으

56) Aune, “Jewish Apocalyptic”, 11-12.

57) Klaus Berger, *Die Apokalypse des Johannes* 1-10, (Freiburg i.Br.: Herder, 2017), 570-571.

58) 이사 40,12: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되었고 장뱀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되로 땅의 먼지를 되었느냐? 누가 산들을 저울로 달고 언덕들을 천칭으로 달았더냐?” 욥기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양을 결정하실 때, 비의 법칙과 뇌성 번개의 길을 정하실 때 그분께서 지혜를 보고 헤아리셨으며 그를 세우고 살피셨다네.”(욥기 28,25-27) 헤아릴 수 없고 잴 수 없는 것마저 계획에 따라 마련하신 하느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은 주로 창조를 연상시키는 표상을 통해 설명된다.

며 그것의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

성경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업적을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그렇기에 정경과 외경에서 말하는 수와 그 완성에 대한 사상은 종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특별히 의로운 이들의 고통과 복수와 심판을 요청하는 외침에도 불구하고 세상 역사의 완성을 의미하는 종말은 하느님의 구원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수가 찰 때까지”는 채워져야 할 수의 크기가 ‘예정된’ 것을, 그 비밀을 드러내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어 갈 것을, 또한 그 때에 성경이 말하는 세상 심판과 죽은 이들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암시한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세상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나 백성의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의지에 따라 지속된다. 성경과 유다교의 묵시문학은 수의 완성을 통해 한편으로 구원에 있어서 하느님의 주도권을 나타내면서 다른 한편으로 심판과 정의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될 것을 강조한다.

### 3.2. 구원의 보편성

로마 11,25-26은 이스라엘의 완고함이 다른 민족들,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한다. 바오로는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다인들의 완고함을 고발하면서도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 역시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속한 것으로 이해한다. ‘다른 민족들의 수가 차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보다 앞설 것이고 그 다음에 구약성경에서 드러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느님의 자비와 약속이 성취될 것을 강조한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자신의 책에서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수의 종말론적 말씀에서 먼저 복음이 백성에게 선포되어야 하고 그런 다음에야 종말이 온다고 말하여졌다면, 우리는 바오로의 로마서에서도 이와 동일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스라엘의 일부가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는 다른 민족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11,25-26) 이방인의 수가 찬다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양식에서 우리는 하느님 구원 의지의 보편성을 본다. 하지만 우리에게 바오로가 이방인의 시기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방인의 시대는 지금 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성취되어야만 한다.<sup>59)</sup>

이방인의 구원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 구원의 보편적인 특징을 잘 서술한다. 복음의 선포와 종말의 도래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택받은 백성만이 아니라 믿는 이들을 모두 구원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혈통에 따른 구원에서 믿음에 따른 구원이 선포된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민족의 경계를 넘어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로 확장되며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역시 배제되지 않는다. 바오로는 이스라엘의 선택과 그것에 반하는 이스라엘의 완고함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게 선포되는 복음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신비’로 언급한다. 이 신비는 하나님의 구원 업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하나님 구원의 보편성은 종말 때에 성취될 완고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 세상에 드러난다.

2바루 23,5 역시 보편적인 전망에서 새로운 세상을 나타낸다. 모든 피조물은 약속된 수가 차게 되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민족을 넘어 피조물에 대한 언급은 이미 살펴보았듯이 구약성경이 강조하는 것처럼, 창조 때부터 시작되고 완성을 향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한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에 속하는 생명과 죽음 역시 창조 때부터 마련되어 이어지고 수의 완성으로 표현되는 종말을 향해 나아간다.

## 나가는 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때문에”(묵시 1,9) 박해의 상황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루는 요한 묵시록은 세상에 보내는 재앙으로 종말을 향해가는 과정을 시작한다. 다섯째 재앙에서 언급되는 순교자들과 그들이 외치는 복수와 심판에 대한 요청은 구원의 의미를 다룬다. 묵시 6,9-11에서 “얼마나 다했는가”라는 질문은 “수가 차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대답으로 돌아온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에서 살해된 이들의 영혼은 즉각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정해진 때까지, 수가 완성될 때까지 유보된다.

---

59) 요셉프 라청거, 『나자렛 예수 2』, 이진수 옮김, (서울: 바오로딸, 2012), 63.

이런 생각은 로마 11,25-26과 외경에 속하는 유다교의 묵시문학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요한 묵시록의 내용과 형식에 가장 가까운 것은 4예즈 4,35-37로 ‘얼마나 더’라는 동일한 질문과 답을 언급한다. 그 외의 유다교 묵시록들 역시 하느님은 약속된 수가 완성에 이르는 것을 통해 종말을 나타낸다. ‘수의 완성’에 대한 생각은 이미 하느님 창조의 위대함을 표현하는 이사 40,12와 지혜 11,20에서도 찾을 수 있다.

‘수의 완성’은 셀 수 없는 것을 헤아리고 측정할 수 없는 것을 재고 무게를 다는 하느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전승에서 시작해서 그 완성 역시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그렇기에 ‘수가 찰 때까지’라는 표현은 하느님 구원 계획의 완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면서 종말을 나타낸다. 심판과 정의 실현 그리고 죽은 이들의 부활과 같은 종말론적인 사건들은 모두 하느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는 종말을 향해, 수가 찰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또한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로마 11장과 2바룩 23장은 종말과 함께 이루어질 하느님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 언급한다.

본고에서 다룬 정경과 외경의 본문들은 로마 11,25-26을 제외하고 1세기 후반에 기록되거나 최종 편집된 문헌들이다. 요한 묵시록과 에녹 1서, 에즈라 4서 그리고 바룩 2서는 기원후 70년에 있었던 성전 파괴라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충격적인 사건을 종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기원전 587년의 성전 파괴와 연결시킨다. 비록 로마서는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쓰였지만, 구약성경에서부터 계속된 하느님의 구원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종말론적인 특징을 찾을 수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다.

하느님은 창조 때부터 모든 것을 헤아리신 분으로 세상의 역사는 하느님의 구원역사이기도 하다. 하느님의 구원은 이미 모든 것을 헤아린 계획 안에서 완성을 향해가고, 종말 때에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그렇기에 ‘수가 찰 때까지’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의 보편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하느님의 위대함을 강조한다.

## 참고문헌

- Aune, D. E., “The Apocalypse of John and Palestine Jewish Apocalyptic”, *Neotestamentica* 40(2006), 1-33.
- \_\_\_\_\_, *Revelation 6-16*, Word Biblical Commentary 52b, Waco, TX: Word Books, 1998.
- Bauckham, Richard, *The Climax of Prophecy*, London: T&T Clark, 1993.
- Beale, G. K., *The Book of Revelation*, The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MI: Eerdmans, 1999.
- Berger, Klaus, *Die Apokalypse des Johannes* 1-10, Freiburg i.Br.: Herder, 2016.
- Bloesch, Donald G., “All Israel Will Be Saved”, *Interpretation* 43(1989), 130-142.
- Burkes, Shannon, “Life Redefined: Wisdom and Law in Fourth Ezra and Second Baruch”,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63(2001), 55-71.
- Charlesworth, James H.(ed.), *The Old Testament Pseudepigrapha* 1, New York, NY: Doubleday, 1983.
- Cohen, Jeremy, “The Mystery of Israel’s Salvation: Romans 11,25-26 in Patristic and Medieval Exegesis”, *Havard Theological Review* 98(2005), 247-281.
- Collins, Adela Yabro, “Apocalyptic Themes in Biblical Literature”, *Interpretation* 53(1999), 117-130.
- Chua, Reginald Mary, “Aquinas and Romans 11,26”, *Journal of Theological Interpretation* 13(2019), 168-185.
- Decock, P. B., “Holy Ones, Sons of God, and the Transcendent Future of the Righteous in 1 Enoch and the New Testament”, *Neotestamentica* 17(1983), 70-82.
- Dunn, James D. G., *Romans 9-16*, Word Biblical Commentary 38b, Waco, TX: Word Books, 1988.
- Giesen, Heinz, *Die Offenbarung des Johannes*, Regensburger Neues Testament, Regensburg: Pustet, 1997.
- Gore-Jones, Lydia, “The Unity and Coherence of 4 Ezra: Crisis, Response, and Authorial Intention”, *Journal for the Study of Judaism* 47(2016), 212-235.
- Heil, John P., “The Fifth Seal(Rev 6,9-11) as a Key to the Book of Revelation”, *Biblica* 74(1993), 220-243.

- Henze, Mattias, “4 Ezra and 2 Baruch: Literary Composition and Oral Performance in First-Century Apocalyptic Literature”,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1(2012), 181-200.
- Josephus, Flavius, *De Bello Judaico* II/1, ed. Otto Michel,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63.
- Laato, Antti, “The Apocalypse of the Syriac Baruch and the Date of End”,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Pseudepigrapha* 18(1998), 39-46.
- Leuenberger, Martin, “Ort und Funktion der Woekenvision und Ihrer Deutung in der Syrischen Baruchapokalypse”, *Journal for the Study of Judaism* 36(2005), 206-246.
- Liddell-Scott, *Greek English Lexicon*, Oxford: Clarendon Press, 1983.
- Longenecker, Richard N., *The Epistle to the Romans*, The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MI: Eerdmans, 2016.
- Luck, Ulrich, “Das Weltverständnis in der jüdischen Apokalyptik”, *Zeitschrift für Theologie und Kirche* 73(1976), 283-305.
- Maier, Gerhard, *Die Offenbarung des Johannes* 1-11, Historische Theologische Auslegung, Witten: SCM R.Brockhaus, 2009.
- Müller, Ulrich B., *Die Offenbarung des Johannes*, Gütersloher Taschenbücher 510, Güterloh: Güterloher Verlag, <sup>2</sup>1995.
- Nickelsburg, G. W. E.-VanderKam, J. C., *1 Enoch* 2, Hermeneia,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12.
- Du Rand, Jan A., “To Adore God’s Identity through Theodicy: Reading Revelation 6,9-11 in Theological Coherence with a Remarkable Classical Example, 4 Ezra”, *The Covenant Quarterly* 72(2014), 111-123.
- DeSilva, David A., “Grace, the Law and Justification in 4 Ezra and the Pauline Letters: A Dialogue”,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7(2014), 25-49.
- Staples, Jason A., “What Do the Gentiles have to Do with ‘All Israel’? A Fresh Look at Romans 11,26-27”,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0(2011), 371-390.
- Stewart, A. E., “Narrative World, Rhetorical Logic, and the Voice of the Author in 4 Ezra”,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2(2013), 373-391.

- Du Toit, Philip la Grange, “The Salvation of ‘All Israel’ in Romans 11,25-27 as the Salvation of Inner-Elect, Historical Israel in Christ”, *Neotestamentica* 49(2015), 417-452.
- Vorster, W. S., “1 Enoch and the Jewish Literary Setting of the New Testament”, *Neotestamentica* 17(1983), 1-14.
- Wischmeyer, Oda, “Römerbrief”, in *Paulus*, ed. Oda Wischmeyer, Tübingen: A.Francke Verlag, 2006, 241-274.
- Wolter, Michael, *Der Brief an die Römer* 2(Röm9-16), Evangelisch -Katholischer 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6/2, Ostfildern, Patmos, 2019.
- Wright, J. Edward, “The Socia Setting of the Syriac Apocalypse of Baruch”,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Pseudepigrapha* 16(1997), 81-96.
- Zoccali, Christopher, “And so all Israel will be saved: Competing Interpretation of Romans 11,26 in Pauline Scholarship”,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0(2008), 289-318.
- 요셉프 라칭거, 『나자렛 예수 2』, 이진수 옮김, 서울: 바오로딸, 2012.

## 구원의 종말론적 특징: “수가 찰 때까지”

허 규

묵시 6,9-11의 “수가 찰 때까지”는 요한 묵시록 외에 로마 11,25-26과 유다교의 묵시문학에서도 발견된다(1에녹 47,1-4; 4에즈 4,35-37; 2바룩 23,4-5). 문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형태는 4에즈 4,35-37에서 찾을 수 있으며 두 본문은 모두 순교자들의 ‘얼마나 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을 전한다. 약속된 수가 완성될 때에 비로소 하느님의 정의는 실현되고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른 본문들 역시 종말론적인 배경에서 하느님의 구원과 정의가 실현되는 때를 ‘수의 완성’으로 표현한다.

‘수’에 대한 생각은 구약성경에서 하느님 창조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이다. 하느님은 창조 때부터 모든 것을 헤아리고, 재고, 다는 것을 통해 마련하셨고 그 완성은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다(이사 40,12; 지혜 11,20 참조). 수가 완성되는 것은 세상을 위한 하느님의 구원과 관련된 것으로 ‘예정된’ 어떤 수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때를 의미한다.

수의 완성을 말하는 본문들은 또한 하느님 구원의 보편성을 언급한다. 바오로는 구원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구원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수가 찰 때까지”는 종말론적인 구원의 특징을 요약하는 표현이다.

**주제어:** 요한 묵시록, 수가 찰 때까지, 종말, 구원, 온 이스라엘



## Eschatological Character of the Salvation: “Until the Number was Filled”

Heo, Kyu

The expression of “Until the number was filled” in Rev 6,11 is founded also in Rom 11,25-26 and the Jewish apocalyptic literature(1 Enoch 47,1-4; 4 Ezra 4,35-37; 2 Baruch 23,4-5). Most similar literary form with the Revelation of John is 4 Ezra 4,35-37, and two texts report that God answers to wait ‘until the number was filled’ about the question with ‘how long’ of martyrs. At the time of completion is fulfilled the righteousness and salvation of God. The other texts also say this fulfill-time with the completion of the number.

The consider about the number is one way for the expression of the God’s creation in the Old Testament. God has disposed all thins by measure and number and weight, and its will be fulfilled at the end time(cf. Isa 40,12; Wis 11,20). That the number is completed, is related to the salvation of God for the world. And this indicates not a ‘predestined’ number, but the fulfill-time of design of God’s salvation.

The texts that represent the completion of number mention also universality of salvation of God. St. Paul emphasizes that the Gospel of Jesus Christ should be proclaimed and the everyone, that confess the believe in Christ, will be saved. “Until the number was filled” is an expression that summarizes the character of God’s salvation.

**Key Words:** The Revelation of John, Until the Number was Filled, Eschaton, Salvation, All Israel

---

논문 투고일	2023년 11월 5일
논문 수정일	2023년 12월 1일
논문게재 확정일	2023년 11월 27일

---